

30. 논설문쓰기 지도

1) 논설문이란?

우리가 날마다 펼쳐보고 있는 신문에서 ‘사설’이라는 특별한 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설이란 글은 신문사가 지향하고 주장하는 논설문이다. 논설문은 가장 짧게 말해서 ‘주장하는 글’이다. 그렇다고 밀도 끝도 없이,

- * 환경을 보호합시다.
- * 용돈을 절약합시다.
- * 대중 교통을 이용합시다.
- * 국산품을 이용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이 자체가 주장하는 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즉 논설문이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나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서술하여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는 글이다. 아무 근거도 없이 상상으로 혹은 추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글쓴이의 의견을 근거 있게 객관적으로 쓰는 글이다. 그 대표적인 논설문이 바로 신문의 사설이다. 학교 신문에서 ‘이렇게 하자’, ‘나의 주장’ 같은 제목의 글 등이 논설문에 해당된다.

2) 논설문의 특성

논설문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여 상대방이 따르게 하거나 또 남의 생각이나 주장의 그릇된 점을 바로 잡아 내어 틀린 점을 바로 잡는 글이다.

그래서 논설문은,

- ① 글쓴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② 실제의 보기나 증거가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 ③ 생각이나 주장을 풀어내는 방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즉 이치에 맞아야 한다.
- ④ 주장이나 생각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에도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⑤ 짜임은 처음(서론), 가운데(본론), 끝맺음(결론)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⑥ 논설문은 종류에 따라 특징이 있다. 즉 사설 논문 평론 연설문 등이 있는데,
 - * 사설은 어떤 일에 대한 신문사의 주장을 쓴 글이고,
 - * 논문은 학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쓴 글이다.
 - * 연설문이나 웅변 원고 등은 여러 사람에게 주장을 알리려고 쓴 글이며,
 - * 평론은 문학, 예술 등을 비평하여 쓴 글이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논술도 논설문과 같은 방법으로 쓰는데, 보다 내용이 학문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3) 논설문의 실제

(1) 논설문과 설명문의 비교

논설문에 대하여 좀더 이해하려면 논설문과 설명문을 직접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논설문과 설명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글이다. 즉 설명문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읽는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고 쉽게 알리는 글이다. 그러므로 설명문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 주장 같은 것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사실 자체만을 자세히 써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논설문은 다르다. 설명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글쓴이의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는데 보조 수단으로만 쓰일 뿐 자기가 내세우는 주장이 글의 핵심(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장이 왜 옳은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 남의 글(책)을 인용해 근거 자료로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에서는,

* ~인 것이다.

* ~라고 생각된다.

* ~해야 한다.

* ~하다.

* ~해보자

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다. 그러나 설명문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쓸 수가 없다. 다음 글을 비교해 보면 논설문의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설명문》

독 서

책은 종류가 참 많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만화책에서부터 소설, 동화, 동시집, 위인 전기, 과학 상식, 예술, 스포츠에 관한 책, 백과사전, 동·식물도감, 우리가 날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 교과서를 자세히 풀이해 주는 참고서 등 너무도 많다. 만화책은 그림에다 설명이 곁들여 있어서 우리에게 흥미를 준다. 소설이나 동화는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서 재미도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 준다. 동요 동시집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

옛날 선비들은 심심할 때 책을 읽으며 그 무료함을 달랬다고 한다. 책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하지만 책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이익을 주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논설문》

독서의 필요성

책은 그 종류가 매우 많다. 그 많은 책들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책 중에는 유익한 책도 많지만 별 이로움이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책들도 있다. 책을 읽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거나 닦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가려 읽어야 한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아무 음식이고 닦치는 대로 먹어서는 안되듯이 책이라고 해서 마구 읽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어떤 책을 어떻게 가려서 읽어야 할까?

첫째로 책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청해 듣고 그 책을 사서 읽으면 좋다.

둘째로 읽을 책이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고 지혜를 길러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로 읽을 책이 널리 알려진 명작인지,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논설문의 짜임

논설문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로 나누는데 그 내용을 보면,

- ① 서론, 즉 글의 첫 마디에서는 현실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제시하며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힌다.
- ② 본론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증명하거나 설명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 이

때 사례나 증명하기 위해 인용한 것들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주장에는 논리적인 근거를 펼칠 수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 한두 명의 특수한 예를 들거나 남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예를 들면 보편성을 잃는 것이다.

- ③ 결론은 본문에서 설명한 것을 토대로 자기 생각과 주장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종류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차례를 거쳐서 완성하게 되지만 특히 논설문은 짜임새 있고 조리 있는 글이기 때문에 글 짜기를 잘해야 한다.
글 짜기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제목	통일을 하자	
단계	문단	문단의 요점
서론	①	6·25 이후 우리 나라는 분단되어 이산 가족이 많다.
본론	②	이산 가족의 아픔
	③	통일의 필요성
	④	통일 후 우리 나라의 변화
결론	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의 아픔도 사라지고 우리 나라도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된다.

(3) 논설문을 쓰기 위한 계획

- ①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모아야 한다.
- ② 자료를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바탕으로 개요 짜기를 해야 한다.
- ③ 이렇게 개요 짜기를 한 것으로, 글쓰기에 들어가면 글의 시작과 끝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따라서 통일성도 갖출 수 있는 짜임새 있는 글이 되면 더욱 알찬 글이 된다.
- ④ 문단의 요점이 모여져서 결국 글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 ⑤ 개요 짜기는 글 전체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다. 이 뼈대를 중심으로 자세한 표현을 하면 뜻이 더욱 분명해져서 남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⑥ 자기 주장에 대하여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려면 주장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좋다.

(4) 논설문의 제목

논설문의 제목은 현실적이고 관심이 높은 것이 좋다. 예를 들어보면,

- ① 일기를 꾸준히 쓰자
- ② 고운 말을 쓰자
- ③ 건강을 지키자
- ④ 효도를 하자
- ⑤ 자연보호를 하자
- ⑥ 통일 안보
- ⑦ 교통질서를 지키자
- ⑧ 전화 예절을 지키자

⑨ 불조심을 하자

⑩ 독서를 하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방법은 처음부터 곧장 논설문 쓰기로 들어가지 않고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관심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각자 두세 가지씩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 그래서 여럿이 발표한 이유를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메모하게 한 후 구성을 거쳐 글 쓰기에 들어간다.

* 논설문 쓰는 방법을 정리하면

①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 쉽게 쓴다.

② 주제와 관련된 생활 속의 경험으로 감동을 주어 설득을 하고 자기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

③ 주제와 관련된 생활 속의 경험이 없을 때에는 주제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을 하여 설득을 하고 마지막에 주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다.

④ 다음엔 틀을 짜고 그 글을 자세히 쓴 후에 글다듬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이러하니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설명하여 자신의 주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은 가장 큰 설득력이 있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게 한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부분은 지식이나 간접경험으로만 쓰기 때문에 내용이 빈약하고 건조해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전화 예절을 지키자, 독서를 하자 등의 글제는 경험이 가능하지만 통일안보나 자연보호, 불조심 등의 글제는 의외로 경험의 세계가 좁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논리적인 설명의 방법으로 주장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논술이나 논설을 쓸 때 토의나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